



군산시체육회를 시작으로 최근 릴레이로 진행된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가 김제와 장수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체육회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익산시체육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 체육 선진도 발전 '한마음'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릴레이 간담회

지난해 이어 올해 두번째로 이뤄져... 애로사항 수렴
"안정적인 예산 확보 통한 체육 발전 필요" 한목소리
전북체육회, 간담회 의견 수렴 체육정책 반영 노력

전북을 체육 강도에서 체육 선진도로 발전시키기위해 전북 체육인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9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군산시체육회를 시작으로 최근 릴레이로 진행된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가 김제와 장수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체육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이뤄진 것

으로 전북 체육 현안 업무 공유를 비롯해 도내 체육인들의 고점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기위해 전북 체육회가 마련했다.
전북체육회는 간담회에서 체육영재 발굴선발대회, 전북체육역사기념관 건립, 실업팀 창단 전문·생활·학교체육 활성화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다음달 도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아

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구했다.
각 시·군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 회장들은 한목소리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체육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체육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국내·외 대회 유치 △체육중사자 처우개선 등 지역별 체육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설명, 논의했다.
전북체육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 잘 수렴해 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강선 회장은 "전북 체육 발전을 이루기위해서는 14개 시군체육인들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소중한 고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체계를 통해 체육으로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2연승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연승을 달렸다.
김도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8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북한체육센터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3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그룹B(3부 리그) 폴란드와 2차전에서 4-0 완승을 거뒀다.
17일 이탈리아를 상대로 연장 끝에 2-1로 이긴 한국은 2연승(1승 1연장승 승점 5)으로 1위에 자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2부 리그(디비전 그룹A)로 승격한다. 한국은 사상 최초로 2부 리그 승격에 도전하고 있다.
1패리어드 16분25초 한수진의 패스를 받아 박재민이 선제골을 넣은 한국은 2패리어드 들어 김희원 최지연의 연속 득점으로 3-0 리드를 잡았다.
3패리어드 한수진의 추가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은 20일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뉴시스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문화정보화 '최우수'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난해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는 문체부 소속 및 산하 기관의 정보화 업무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문화 정보화 수준 향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대상 기관은 문체부 17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31개로 모두 48개 기관이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준 평가는 △기관의 정보화 추진 의지와 역량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정보보호 체계 수준 등 5개 항목으로 채점했다.
체육진흥공단은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체 산하기관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지난해 시행한 '타 3인' 체육 쿠폰 지원 사업의 빅데이터 수집·개방과 체육회 최초 모바일 자격증(스포츠키드) 발급 서비스 도입 등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체육 관련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관련 산업과 국민 건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정보화 역량을 보유한 스포츠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방법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현금 또는 카드)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기부자 인증(가주지·한도 확인) > 기부금 결제(계좌이체·신용카드 등) > 답례품 선택(기부액의 30%) > 답례품 배송(배송지 선택 배송지역 제외)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김사키트, 범초대행사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기부문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

순창군

춘계 중고교 육상경기 '2관왕'

이리동중 최명진, 100m·200m '우승'
이리공고도 금3·은1·동1개 획득

이리동중학교 육상부 최명진 학생이 재기에 성공했다.
19일 이리동중에 따르면 최명진 학생은 경북 예천에서 열린 제52회 춘계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서 100m와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 2관왕에 올랐다.
초등학교부터 육상에 재능을 보인 최명진 학생은 이리초 6학년 재학 시절에는 참가하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세우며 '조미네이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인한 대회 축소, 부상 등으로 지난 2년간 성적을 내지 못했다.
치료와 재활에 전념한 결과 최명진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학생의 신체 조건과 종목에 맞는 개별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박세근 운동부지도자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도움이 됐다.
최명진(3년) 학생은 "스타트 파울을 하지 않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훈련했고 후반부까지 죽 이어갈 수 있는 체력 단련에 매진했다"면서 "박세근 선생님의 세밀한 지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세근 운동부지도자는 "최명진 학생의 신체조건과 종목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을 개발하고 꾸준히 훈련에 적용한 게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대회 때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김윤자 교장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자 교장은 "전통이 있는 이리동중학교 육상부의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며, 운동뿐만 아니라 인성이 바른 학생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리공고도 육상부는 이 대회에서 금 3, 은 1, 동 1개를 획득했다. /정은성 기자



여자 일반부 단체전 우승 '쾌거'

김제시청 태권도팀, 여가부장관기 전국대회서

김제시청 소속 태권도직장운동경기부가 지난 17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제22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전국태권도 대회에서 김제시청 태권도팀은 개인전에서도, -73kg급에서 김다빈 선수가 1위, -48kg급 김운선 선수가 2위, -68kg급 백선경 선수가 3위, -67kg급 이수국 선수가 3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개인전에서 좋은 성적을 낸 김제시청 태권도팀은, 개인전 우승의 여세를 몰아 임민지, 송미성 선수가 합류한 5인조 단체전에서 청주시청팀을 꺾고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해, 4월 20일부터 열리는 태권도 국가대표산발대회에서도 멋진 금빛 발차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제=박노태 기자



고창 여자유도, 양구실업선수권 '승전보'

금1·동4개 획득... 유예진, 아시아 오픈 대표 출전권 획득

고창군청 여자유도팀이 지난 12~14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3 양구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1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국제대회 파견 선발전'을 겸한 이번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고창군청 여자유도팀의 유예진(-70kg) 선수는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 오픈 대회에서 대표 선수로서 출전하게 됐다.
또 박은이(-48kg), 김이현(-52kg), 김아현(-78kg), 전예지(-63kg)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고창군은 현재 이자연 경기지도자와 선수 7명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개인전 32개, 단체전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여자실업유도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자연 경기지도자는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훈련에 매진해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